

삼성전자, Sony와 LCD 8세대 투자

S-LCD 통해 탕정 2라인 증설 1조7957억원 투자 ... 50인치 이상 TV용

삼성전자와 Sony가 양사의 합작기업 S-LCD를 통해 탕정 LCD 8세대 2라인 증설에 50%씩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4월25일 이사회를 열어 LCD TV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투자를 결정하고 S-LCD를 통해 1조7957억원의 설비투자를 실시한다.

양사는 Sony가 10세대 이후 투자를 삼성전자가 아닌 Sharp와 함께 진행하기로 하면서 8세대 공동투자 확대에 대한 결정을 미루어왔으나 LCD 활황에 힘입어 공동투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2/4분기 가동예정 8-2라인은 50인치 이상 TV용 패널(유리기판 크기 2200mm×2500mm)을 기관 기준으로 월 6만장 정도 만들고 생산제품은 삼성전자와 Sony에 50%씩 할당된다.

삼성전자는 “양사는 8-2라인의 공동 투자에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LCD TV 시장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대형 LCD 패널의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안정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형 LCD TV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특검정국>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4분기 영업이익이 2조원을 돌파하는 등 호조를 보이며 건재를 과시했다.

또 2008년 해외 연결기준으로 사상 최대규모인 총 11조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메모리 부문에 7조원 이상, LCD 부문에 3조7000억원 이상을 배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2008년 1/4분기 매출 17조173억원에 영업이익 2조1540억원, 순이익 2조187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25>